

정화관광 운전기사 이원규씨(불교봉사단체 심우회 회원). 그는 군포를 출발 전남 소록도 나환자촌을 천리길도 마다않고 매일 달려온다.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찾는 곳은 부모처럼 생각하는 원순(80세) 할아버지의 집. 나병으로 하체와 한쪽손을 못쓰지만 유머와 정감이 가득한 할아버지는 이씨가 집에 들어오면 이것저것 먹을 것을 챙겨주고 손수 음식도 준비한다. 이씨가 맛있게 식사하는

## 작은 실천 큰 기쁨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모습이 즐거운 할아버지는 송농도 떠나주며 그의 곁을 돌 줄 모른다. 이씨의 방문은 자식이없는 할아버지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처음 이성을 찾는 사람들은 주민들이 주는 식사를 제대로 못한다. 그래서 아궁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거리를 두지 않고 스팀없이 대해 줄 때이다.

식사를 끝내고 나면 아씨는 집안손질과 마당의 잡초제거, 가전제품들을 수리해주고 도시구경이 힘든 이들의 말벗이 돼 세상에기를 나누기도 한다. 손발이 성치 않은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렇듯 집안 구석구석에 잔손거는 일들이다. 어떤때는 찬장 귀퉁이에서 죽은 쥐를 치워 주기도 했다.

아날 원순할아버지는 지난해 겨우 땀아든 고추 가루등 양념거리들을 이씨에게 들뜬 썩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발농사를 지어 수확의 기쁨을 누리지만 달리 보낼데가 없어 내다 버리기까지 한다고. 외지사람들이나 친인척들에게 나눠주고 싶지만 팔기 꺼려한다는 것을 잘 알고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여러번 보아온 아씨는 그런때가 가장 가슴아프다고 말한다.

"누구나 부모님이 있어서 태어난 것이지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들을 불사의 대상이 아니라 내 부모님처럼 생각합니다."

아씨는 소록도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인 공동참교회 회원들을 버스에 싣고간 것이 계기가돼 8년째 매달 불교 식당을 가지고와 4월5일간 숙식을 같이하며 봉사하고 있다.

"아무리 각박한 세상이라 하더라도 정을 나누고 살아가는 이웃은 있어야 한다"고 아씨는 힘주어 말했다. (김원우 기자)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opia.com

# 매달 국난극복 법회 연다

## 4월5일 신홍사서 시작 11월까지 전국순회 범종단 합심 "참회 수행으로 IMF 이기자"

국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범종단 차원의 대대적인 전국 순회법회가 4월5일부터 11월까지 8회에 걸쳐 열린다. 범종단협의회(회장 월주 조계종총무원장)가 주최하고, 조계종 태고종(총무원장 인곡) 천태종(총무원장 운덕) 진각종(총무원장 성초) 관음종(총무원장 홍파) 총지종(총무원장 총지화) 법륜종(이사장 정각)이 주관해 '국난극복을 위한 참회 법회'를 개최한다.

이번 국난극복 법회는 △4월 5일 오후2시 속초 신홍사(주지도주·불교방송 이사장)에서 국민화합기원 '화합의 동산' 식목행사를 시작으로 △5월26일 예산 수덕사(주지 법장)에서 파사현정 실천 참아람선진진 △6월 관음종의 삼교전에서 영산대재 △7월 천태종 서울 관문사에서 동계대비 구현 철야 관음정진 △8월 진각종 대구불교대학에서 통일법원 철야 옴마니반떼총집진 △9월 총지종 부산 정각사에서 진호국가 발원 철야 옴마니반떼총집진 △11월 태고종 순천 선암사에서

서 대참회 관음에문연비 △11월28일 법륜종 목포 보현정사에서 지역화합기원 3천배정진 의 순으로 진행된다.

각 정당불자모임과 불교언론 3사(현대불교신문 불교방송 불교TV)와 군승단 경승단이 후원해 추진된 이번 법회는 경제난 국을 참회라고 하는 실천수행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국민화합을 통해 나라안정을 회복하려는 점에서 교계 안팎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종단합 내부적으로는 2년여 만에 갖는 합동행사여서 화합에도 새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첫 행사인 신홍사법회는 1천여명이 동참할 예정으로 1부 법회식과 2부 '국민화합의 동산' 기념식수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는 범종단 회장 월주스님의 법어, 태고종 총무원장 인

### 국난극복 법회 일정

장소	일
속초 신홍사	4월 5일
예산 수덕사	5월 26일
관음종 아산 삼교전	6월 1일
진각종 서울 관문사	7월 1일
총지종 대구불교대학	8월 1일
부산 정각사	9월 1일
태고종 순천 선암사	11월 1일
법륜종 목포 보현정사	11월 1일

곡스님과 자민련불자와 박철원 회장의 발원문이 있다. 이어 전두환 전 대통령, 신남관 문화재청장, 서석재 국회의원장과 속초시장이 각각 경제회생을 기원한다.

한편 이날 법회를 위해 신홍사에서는 사찰이 단체가 동참할 때 입장료를 받지않기로 하는 한편, 불교방송은 법회참가자를 위해 차관을 마련한다. (위영란 기자)



### 부처님의 자비로 이웃과 함께

연중캠페인 4월 26일 오후2-10시 (동대문 운동장-조계사)  
 Lantern Parade April 26, P.M. 2:00-10:00 (Tompdamun Stadium-Chogyesa Temple)  
 법회식 5월 3일 오전10시 (각사당)  
 Lantern Festival May 3, Evening Hours (All Temples)

조계종 불족위원회가 올 불족 포스터를 선보였다. 화사한 색과 현대적 감각을 살린 포스터는 '부처님의 자비로 이웃과 함께'라는 불족 표어와 4월26일 연중캠페인 5월3일 전국사찰의 법회식 일정을 담았다.

### 현대불교 '명예기자' 29명 위촉

▶강주수(부산) ▶김영미(하남) ▶이관(서울) ▶이순란(안동)  
 ▶김현근(부산) ▶김연장(미국) ▶김민지(서울) ▶김성실(안산) ▶김재희(울산) ▶목영태(경기) ▶박민수(광주) ▶박은희(부산) ▶박희경(경주) ▶배선옥(경주) ▶배연희(서울) ▶이경숙(서울) ▶이매림(서울)  
 ▶이종경(경북) ▶이희명화(서울) ▶안광숙(안양) ▶정성진(양산) ▶장기연(부산) ▶장인식(서울) ▶장명화(서울) ▶조명숙(대전) ▶최길락(캐나다) ▶최순환(수원) ▶함수경(서울) ▶한재명(영광부)

## 6월 LA서 평화통일 기원법회

### 남북불교대표단 북경회담서 합의 초파일 동시타종·공동발원문 봉독

5월 3일 오전 10시 한국과 북한에 지정된 사찰에서 동시에 법회가 울리고 공동 발원문이 낭독된다. 또 6월15일 미국 LA 관음사(주지 도안)에서 남북한 및 해외 불교지도자들이 참석하는 '남북불교지도자 통일문화 기원법회'가 봉행된다.

조계종 총무원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중앙회장 법타·미주 광범법 회장 도안)는 3월 13, 14일 양일간 베이징(北京) 레라톤호텔에서 조선불교도연맹(이하 조불련) 대표단과 남북불교실무회담을 가졌다. 회담에서 대표단은 남북불교도 동시 법회 공동 발원문, 제2차 남북불교지도자 평화통일 기원법회 봉행, 한국종단협의회 대표단 발원식 조불련에 다각적인 지원 등 4개 항에 대해 합의했다. 또 대표단은 금강국수공장 준공식을 5월5일경 갖기로 하고 한국 불교대표단을 초청하는데 합의했다. 양측은 이 밖에도 인도적인 차원의 남북 불교교간 교류 협력의 활성과 하는 한편 불교문화재 교환전시, 남북 사찰간 자매결연 등 남북불교교간 장기교류와 금강산 신계사 복원 추진 방안 등을 시간을 두고 잠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16-17일 조계종 총무원 사외부장 능근스님은 남북대표자 실무회담을 별도로 갖고, 남에서는 박태호 조불련 위원장을, 북에서는 송원주 조계종 총무원장을 상호 초청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실무회의 및 접촉을 계속하기로 했다. 불교문화 교류에 대해서도 상호 가능한 것부터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 불교문화 체험기행

따스한 봄햇살에 비친 부처님의 미소가 한층 정겹게 느껴지는 4월, 산과 들이 어우러진 넉넉한 내포땅의 소박하면서도 자연스러움이 돋보이는 산사와 '백제의 미소'가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4월의 불교문화 체험기행은 문화의 미소로 정경이 나 있는 서산 마애삼존불(국보 제84호)과 단아하면서도 기품있는 대웅전(국보 제49호)으로 유명한 수덕사, 곱빛꽃이 만개한 개심사를 찾아 갑니다. 이 답답한 시절에 마음을 활짝 열어 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화사한 계절에 문화하고 파사로운 백제인의 숨결을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 4월 '백제의 미소와 숨결을 찾아서'

수덕사, 개심사, 서산 마애삼존불

출발: 4월12일(일) 오전7시·조계사 앞  
 회비: 3만5천원(점심제공)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02)737-8881, 722-4162  
 해초여행사(02)722-3900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단체참가 적극 환영합니다.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협찬: 일양약품  
 주관: 해초여행사

# 담화문

## - 일부 해종행위자들의 소송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에 즈음하여 -

재판에서 수행과 종단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사부대중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개혁종단(총무원)이 출범한 지 올해로 3년여가 지났습니다. 이 3년여 동안 종단은 종도 여러분의 도움에 힘입어 민주적 제도를 정착시키고 종단의 대사회적인 위상을 높여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종단은 승가의 화합과 종단의 안정이 현재 한국불교 발전에 있어 최우선의 과제요, 제반의 발전상을 종합하는 가장 큰 성과라고 여겨졌습니다. 종단의 안정적인 기틀을 위해 서만이 흔들림없는 개혁이 성취되며 나아가 21세기 한국불교발전도 보장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3년 동안 종단은 종도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단단한 안정기조를 유지해왔습니다. 이런 기조 위에서 오랜 숙원이었던 중앙승가대학의 4년제 정규대학 승격을 인가받았으며 종단 제반 교육개혁사업 추진과 깨달음의 사회와 운동을 통하여 포교활성화와 대사회적인 역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사법,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등 종단 관련 국가법령을 종단의 의도대로 개정하여 종단 운영의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지평을 넓혔으며 전통사찰 경내지에 부과되던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도록 제도화하였고 공인입장표제지 운동을 벌여 현 정부의 자연공원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국 14곳에 달하는 성보박물관 건립에도 국가의 예산지원을 받아내는 전례없는 성과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종단의 이 모든 성과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협력을 해주셨던 사부대중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종단개혁 이후 이러한 종단의 발전상을 방해하고 흠집내려는 해종분자들이 최근까지 각종 송사를 벌였던 사실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해치고 그 틈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넓혀보려던 그들의 시도는 대법원의 지난 1998년 2월 24일 최종 기각 판결로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이들 해종행위자들(전경(황한수), 성림(박희수), 종진(황종민), 윤성(김원석), 원정(장원덕), 덕수(정순식) 이상 6명)은 1996년 1월 24일과 4월 21일 각각 '총무원장 횡포(송현심) 선출무효 확인소송'과 '총무원장 횡포(송현심) 직무정지처분신청'을 법원에 신청하고, 94년 3월 20일부터 있었던 일련의 종단개혁과정에서의 개혁회의법과 이후의 종헌이 무효이며 이 법에 근거해 선출된 현 총무원장 선출이 무효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는 사부대중이 개혁과정에서 보인 열의와 헌신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발상이었다고 보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단체는 그 자율성에 기초하여 스스로의 결의에 따라 그 기구를 개편하고 단체내부를 규율하는 규범을 정할 수 있고 이는 스스로의 질서규범으로서 그 자치에 맡겨지고 존중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며 이러한 전제에 기반해서 지난 94년에 있었던 종헌개정과 개혁회의법 제정은 불교고유의 '산중공사'에서 유래한 종단의 전통화된 의견상충방식인 '전국승려대회'의 결의에 따른 것으로 전례에 따라 합법성이 부여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개혁회의법에 의해 제정된 총무원장선거법 역시 유효하며, 선거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했다는 점이, 선거법상 총무원장 피선거권이 없는 자가 총무원장에 피선됐다는 점

등은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반대로 현 총무원장은 제반 자격요건을 충족하게 갖추고 있으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1994년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종단개혁의 큰 흐름 즉 종헌개정, 개혁회의법, 개혁종단 및 총무원장 선출이 모두 적법성과 정당성을 지닌 것으로 대내외적으로 공인되었습니다. 판결에서는 특히 종단개혁 당시 긴급한 사태하에서 불교고유의 산중공사에서 유래한 1994년 4월 10일자 전국승려대회의 결의가 초종헌적인 구속력이 있고 법통성을 계승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결의에 따른 종단개혁은 적법타당함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 동안 종단개혁에 불만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종단과 총무원장을 음해하던 해종분자에 대하여 그들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최종적인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하여 소모적으로 시비를 가리는 일이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종단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해종분자도 종단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커다란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됩니다.

전국의 원로·중진스님과 사부대중들의 종단을 수호하고 불조례명을 지키려는 끊임없는 애증심과 성원에 감사할 따릅니다. 총무원장은 앞으로도 개혁종단의 정당성을 부정하거나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해치는 불온한 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중법을 집행하고 그러한 시도가 예초부터 발생할 수 없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현재 종단 앞에 놓여 있는 각종 현안의 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21세기 종단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가일층의 노력을 기울여 세계 속의 한국불교를 일구어 나가겠습니다.

佛紀 2542年 3月 20日  
 大韓佛敎曹溪宗 總務院長 宋月珠